

■ 본보 방문 일본 역사자료센터 이시이 요네오 소장

# “한·일 역사 논쟁 보다 사실 공유가 우선”

“역사인식은 사실의 공정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식민지 통치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로 잘 알려진 일본 사회당의 무라야마도 미야지 나카미 재임(1993)된 일본 아시아 역사자료센터(도쿄도 치요다구)의 이시이 요네오(76) 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부산일보사를 방문했다.

“아시아 관련 옛 문서 디지털화  
부산·경남 주민 많이 활용하길”

일본 국립 공문서관 소속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아시아와 관련된 일본의 옛 문서들을 디지털화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1년 설립됐다. 역사인식 분계를 놓고 논쟁하기 이전에 역사적 사실을 우선 공유해 보자는 뜻에서다.

이 센터는 메이지유신에서부터 2차 대전 패전(1868~1945)까지의 총 137년 6개월의 디지털 자



료를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이 자료는 일본의 국립 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청 방위연구소 등 3곳에서 제공받았으며 향후에는 소장 자료의 3천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시이 소장 등 일행이 부상을 방문한 것은 이 자료들을 부산·경남의 주민들도 많이 활용해 주면 해서다.

이용자는 홈페이지([www.jaccr.go.jp](http://www.jaccr.go.jp))에 들어가

가 열어 또는 일본어로 찾고자 하는 내용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된다. 물론 옛 문서 자체는 88%가 일본어로 되어 있다.

이들 센터 한국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 ‘조선’ ‘중화’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입력하면 1만건의 자료가 검색된다고 한다. 위안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등 한·일 간에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키워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료들을 정리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원본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료센터의 큰 장점. 일왕의 종전을 발표한 문서의 경우에는 문장을 고쳐 부른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 측은 또 패전 전까지 메이지시대의 외교 문서분야 자료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2천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되는 이시이 소장은 자료센터를 설립할 때 우려의 반대가 많았으며, 지금도 이런 자료류 공개하는 데 대해 반대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의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료센터가 오픈됐다며 부산·경남 주민들도 많이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용오기자 [choyoo@busanilbo.com](mailto:choyoo@busanilbo.com)

見出し：「日韓の歴史論争よりも事実共有が優先」、釜山日報社を訪問した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石井米雄センター長

小見出し：アジア関連の過去文書をデジタル化、釜山・慶尚南道の住民による活用を望む

内容：

「歴史認識は、事実の堅固な土台が必要です。」

植民地統治について謝罪した『村山談話』でよく知られている日本社会党の村山富市内閣時に提案、設立された「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東京都千代田区）の石井米雄（78）センター長ら関係者が23日、釜山日報社を訪問した。

国立公文書館所属の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は、アジアと関連した日本の過去の文書をデジタル化して、誰もが何処でも見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しようとの趣旨により、2001年に設立された。歴史認識問題について論争する前に、まず歴史的事実を共有しようという趣旨からである。

このセンターでは、明治維新から第二次大戦敗戦（1868～1945）までの1千430万件のデジタル資料を、インターネット上で無料で提供している。この資料は、日本の国立公文書館、外務省外交史料館、防衛省防衛研究所の3ヶ所から提供されたもので、今後は、所蔵資料を3千万件まで増やす計画である。

石井センター長ら一行が釜山を訪問したのは、これらの資料を釜山・慶尚南道の方々にも活用して欲しいという考えからである。

利用者はホームページ([www.jacar.go.jp](http://www.jacar.go.jp))に入って、英語または日本語で探したい内容のキーワードを入力すれば良い。勿論だが、過去の文書自体は99%が日本語である。

例えば、韓国と関連があるキーワード「朝鮮総督府」という単語を日本語で入力すれば1万件の資料が検索されるという。慰安婦、独島（日本名竹島）（原文ママ）等、日韓の敏感なイシューについてのキーワードも、いくらでも使用可能だという。

特に、これらの資料が整理・脚色されずに原本の形態で見られるのは、資料センターの大きな長所である。日王（原文ママ）が終戦を発表した文書の場合、文章の訂正箇所まで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センター側は、敗戦前までの明治時代の外交、軍事分野に関する資料を多く所蔵していると評価している。

ホームページの訪問者数は、韓国と中国、台湾などを含め、一日平均2千人に達しているという。

日本において東南アジア研究の最高権威と評価される石井センター長は「資料センターを設立する際、右翼からの反対が多く、今でもこのような資料を公開するのに対して反対がある。だが、歴史的事実を共有することが重要なので、結局資料センターが開設された。」とし、釜山・慶尚南道の方々にも活用して欲しいと述べた。